

# 뜻 모르고 외던 '반야심경' 한글로 하세요

운허 스님본 저본... 현대적 이해 중점 두고 한글화 해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이 <반야심경>의 현대적 이해를 위한 한글본을 공포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한글본은 제187회 중앙총회에서 가결돼 총무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종단은 앞으로 한글 <반야심경> 대중화를 위해 각 부서별로 교육 및 행정업무를 펼칠 예정이다.

의례의식의 한글화 중단 숙원 현 집행부의 핵심과제기도 사찰마다 다른 한글본 통일 사찰·기관의 협조가 과제

단은 그동안 의례위원회 등에서 <반야심경>의 한글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한글본(반야심경)을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사찰마다 각각 다른 한글본으로 독송을 하고 있어 표준본 확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공포된 한글(반야심경)은 운허 스님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표준 한글본은 독송시간 단축을 위해 운허 스님본에서 글자 수를 줄이

고 계속되는 반부고는 생각했다. 진언 번역은 한문 음사를 따랐다. '아늯다라삼막삼보리'를 '최상의 깨달음'으로 번역하는 등 문자 위주의 번역보다는 의미 번역을 통한 현대적 이해를 높였다. 종단은 앞으로 한글반야심경 독송을 녹음해 각 사찰 및 기관에 배포하는 등 한글반야심경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주력한다.

총무부는 전국 본·말사에 한글 <반야심경> 시행을 통보하고 종회와 총무원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무 사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각 종단 교육기관과 행사교육원의 교육을 안내하고, 포교원은 각 포교 및 신도단체, 신도전문 교육기관, 전법중심도량별로 미디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의례위원회 위원장 인묵 스님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중요한 작업을 마쳤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절경례 등의 표준한글화도 논의 중이다. 한글 <반야심경>을 복축에 제안해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종단은 10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의 한글 <반야심경> 봉정 및 조계사 회주 무진장 스님의 특별 법문을 개최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한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전문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공 공이 공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안 이 비설 신 의도 없고, 색 성 향 미 촉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

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높고 죽음도 높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연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무명의 주문이며, 무의도와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3번)

## 종상·정휴 스님 재심호계위원 반대

“일반사회라면 탈락됐을 것” 교단자정센터, 성명 발표

“종상·정휴 스님의 재심호계위원 선출은 자성과 쇄신을 통한 5대 결사에 반하는 처사이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는 조계종 중앙총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재심호계위원에 선출된 종상·정휴 스님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10월 4일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성명서에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만민의 사표가 되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이 호계위원이 됐다”고 말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종상 스님이 사찰 내 골프연습장 건설, 폭력, 횡령 등 과거 수차례 실정법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정휴 스님은 현재 학원법인의 이사로서 비리 의혹에 계속 중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종상·정휴 스님에게는 ‘종무원법’ 제21조, ‘호계원법’ 제9

조 제1항에 부합하는 품위와 공명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교단자정센터는 “종단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위축돼 종단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일반 사회에서라면 청문회를 통해 탈락될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종단에서는 버젓이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심판관 자리에 앉았다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가 그 결정에 승낙하겠냐”며 정휴 스님과 종상 스님의 용퇴(勇退)와 인사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종무원법’ 제21조는 “종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호계원법’ 제9조 제1항은 “호계위원은 율장의 정신과 승가의 양식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 “불경죄 물어야”

도천 스님 입적 1주일 만에 새 주지 임명에 견책 요구

조계종 원로회의가 도천 스님의 입적 1주일 만에 태고사로 재산관리인을 파견한 마곡사 주지에 원로에 불경한 죄를 물어 견책할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0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8차 회의를 열었다. 원로의원들은 임기만료된 전계 대화상에 고산 스님의 연임을 동의·추천했다.

원로의원인 율탄·인한·정관·압도·근일 스님의 대종사 법계심을 통과시켰다. 또, 화쟁위원회가 준비 중인 아쇼카선언에 대해서는 신중히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는 도천 스님 입적 1주일만인 4일 재산관리인을 파견해 노스님 집을 쟁겨나고라고 통보해 물의를 빚어왔다.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원로회의가 열린 6일 오전 원로의장 종산 스님과 도천 스님 상좌인 명선 스님(원로의원)을 찾아 참회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 멸빈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멸빈이 확정됐다.

태고종 호법원(원장 운곡)은 10월 4일 회의를 열고, 해종행위 등 중한 중법 위반 혐의가 있는 운산 스님을 호법위원 7인 만장일치로 초심원 멸빈 판결을 확정했다.

호법원은 운산 스님의 항소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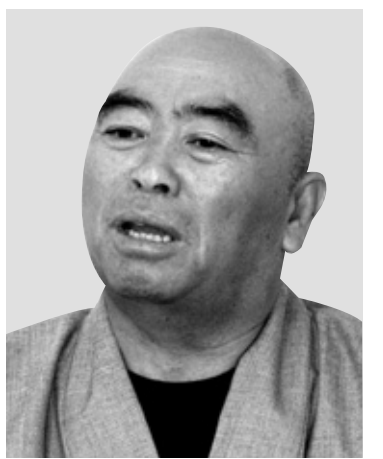
이유에 대해 “운산 스님이 사회법을 들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나, 종단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해종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중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이라 내세우나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다. 특히 반성과 참회 없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 바로잡습니다

본지 856호(10월 5일 발행)에 보도된 “스님, 저희를 두고서 어디로 가십니까” 기사 중 ‘회계사 조질 도천 스님’은 ‘회계사 조질 도천 스님’의 오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조계종 속원이던 승려복지 시작 조계종이 10월 1일 승려노후복지제도를 시작한다. 승려복지제도(회장 영담)를 출범시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총무부 입구에서 개최된 현판식에서 “승려노후복지가 시행착오의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야 시행하게 됐다. 종단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고, 출가수행자는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사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종법 무시해 사회법으로 간다”

또 다시 중앙총회의원 후보자격 박탈된 법일 스님

“30여 년 비구로서, 조계종도로 살아 온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다.”

법일 스님(사진)은 10월 6일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종단의 사법기구 판결과 규정에 의하면 총무부장의 전결 행위는 종법위반이다. 소남이 비구라는 것은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데 총무부장과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는 위법적인 행정과 판결을 또 다시 자행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5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중앙총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어)로부터 ‘후보자 자격 없음’ 판정을 받았다. 선관위의 결정은 총무부로부터 ‘구족계 수계 자료가 없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였다.

이날 스님은 서울중앙지법에 10일 은혜사 중앙총회의원 선거의 ‘선거종지 및 선거효력 정치 가치 분 신청’을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법일 스님은 “종법(법규위원회법, 호계원법)에 규정된 인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종단사법기구에 제소할 길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회법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중앙총회의원 후보자격 박탈과 불법적인 승적기록 삭제와 종단 사법기구 판결을 무시한 총무

부장과 총무원 집행부의 초법적인 작태는 가장 도덕적이어서 할 종교단체에 있어서는 안될 정치적인 음모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일 스님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단 집행부가 중앙총회의원 자리를 놓고 사퇴를 종용하고 밀실에서 야합하며 힘없는 종도 개인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는 것이 과연 ‘자성과 쇄신’ 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책특보 모 스님을 비롯해 자신을 회유한 인사들을 실명

으로 직접 언급했다. 법일 스님은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종단을 세울 수 있도록 소남의 외롭고 힘든 싸움에 조계종도와 사부대중의 동참과 격려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박구원 만평



# 민족의 영산 금정산을 그대로 두라 !!!

- 금정산 관통 금정터널 공시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도로공사와 부산광역시는 민족의 영산 금정산과 범어사 경내지를 무려 7.42km나 통과하는 폭 50m의 4차선 양방향 쌍굴 장대터널 공사를 착공하려 한다. 금정산에는 천년 고찰 범어사와 14군데의 약수터, 2,300여 종의 수목과 600여 마리의 포유동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부산지역 생태계의 보고이다. 금정산을 관통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금정산의 수많은 유·무형의 문화가치와 역사유적들,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범어사의 수행환경이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에게 자연과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금정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터널로 관통하지 말고 노선을 금정산 북쪽 외곽으로 우회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어서 경제성 및 도로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통행도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 금정산은 개발의 광풍으로 이미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 KTX금정터널, 고압선철탑, 각종 유희시설들로 만신창이가 된지 오래다. 여기에 다시 금정산을 장장 20여리나 관통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여 한국불교의 중심 범어사를 능멸하는 의도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지만 하다. 정부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정밀하게 다시 시행하여 대안노선을 강구하고 현 금정산관통 노선을 폐기해야 한다.

## 역사·전통문화·생태계를 파괴하는 금정터널 계획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 민족의 영산 금정산 파괴 자체의 문제 - 국민정신문화 파괴**
  - 민족영산 금정산을 장장 20여리, 전체 잡식 폭 50여m의 터널이 관통한다.
  - 총 142만8천입방미터의 화강암이 금정산 내부로부터 적출된다.
- 대안노선 노력의 부재 - 교통해소 및 경제성 의문 교통영향평가 다시 해야**
  - 금정산을 터널로 관통하는 이 도로의 개통년도 2016년도의 통행량은 목표 추정치 59,890대에서 12,036대가 줄어든 47,854대다. 감소 이유는 2017년 함양 - 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덕 - 센텀 지하 도시고속화도로'가 건설되어 대폭적인 통행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 불교를 무시하는 공사 - 조계종과 범어사, 부산 및 경상권 및 전 불자를 무시하는 공사**
  - 터널공사 자체가 이미 한국불교 및 조계종의 대표 선찰이자 호국 대도량인 범어사의 유·무형 가치를 훼손하고 불교의 위상을 추락시킨다.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 절차상 하자 / 이 조항은 참여정부 시절 북한산터널과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설된 조항**
  -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제3항의 위반(도로 건설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조항), 범어사의 토지가 연장 512m / 11,377㎡가 들어간다. 범어사대웅전과 1천2백여미터, 내원암, 청련암과는 불과 8백여미터 상거한 범어사 소유의 지반 밀로 통과하기 때문이다.
- ‘금정터널’ 터널공사와 관통 후 예상 부작용들**
  - (1)노선이 통과하는 금정산 및 산 주변의 총체적인 생태계 파괴와 훼손 (2)지하수위의 하강, 각종 진동에 의한 산사태, 바위 흘러 내림 현상발생 (3)발파진동, 오염수, 분진, 공사 소음 등의 피해 (4)금정산 터널 경구 등 일대의 상시적 대기오염 집중 (5)주변식생대의 훼손 (6)보호습지의 파괴 ‘금샘(장관습지)’와 ‘범어늪’ 통과에 따른 문제 (7)장장 2십여리의 장대터널로 화재와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와 우려 (8)장거리 터널 운행 시 운전자의 집중해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우려 (9)사경 등 보조 경으로 인한 2차, 3차 산지 파괴 (10)터널공사 시 발파 및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에 의한 항구적 피해 등이 예상된다.
-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 금정산은 2곳의 보호 늪과 14군데의 약수터, 수목 2,300여종과 600여마리의 포유동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금정산 관통 터널은 자연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

## 민족의 영산, 부산과 경상권 시민의 귀의처 금정산관통 노선을 철회하라 !

불기2555(2011)년 10월 5일

민족영산 금정산관통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반대 범어사 대책위원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전화 : 051)508-3122